오픈뱅킹 도입
의의와 발전을 위한 제언

비바리퍼블리카 손현욱 실장

toss

Overview

오픈뱅킹 도입의 의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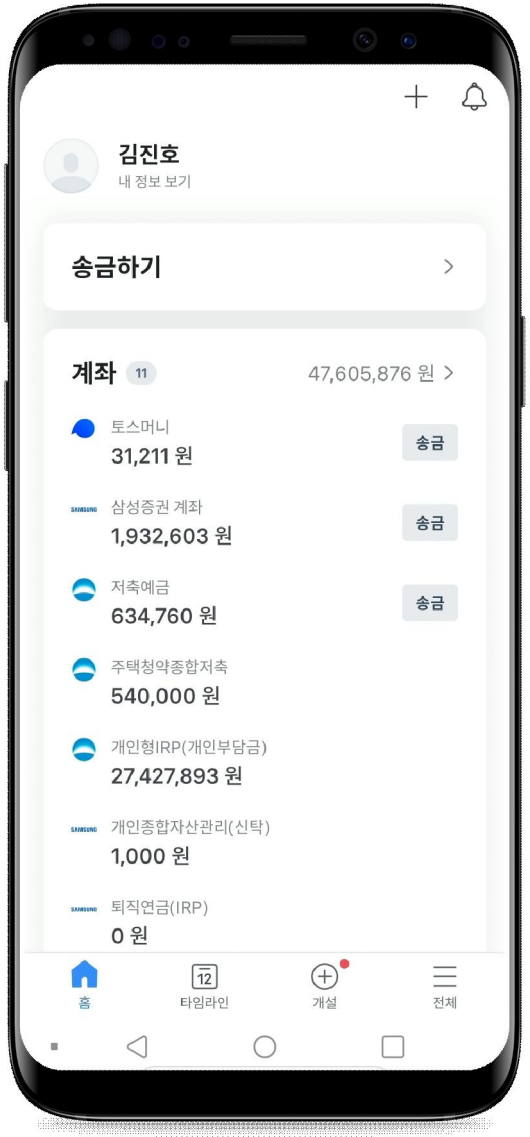
오픈뱅킹 발전방향과 제언

오픈뱅킹의 의의

토스 오픈뱅킹 실적

19년 12월 오픈뱅킹 도입 이후,
오픈뱅킹 출금 서비스 이용 비율 지속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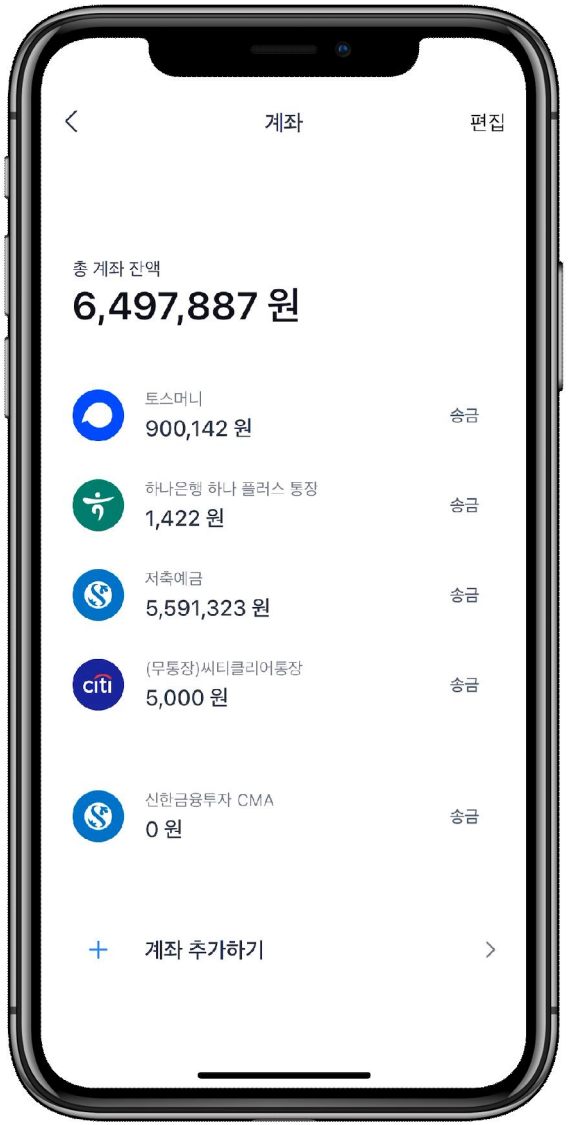
19.12월 24.7% > 20.1Q 83.4% > 20.2Q 84.6% (농협 제외)



토스 오픈뱅킹 실적

5월 말 카카오뱅크 조회 서비스 오픈 이후, 조회 건수 급 성장

잔액조회 : 5월 40만건 > 6월 1,800만건
거래내역조회 : 5월 4만건 > 6월 90만건



오픈뱅킹의 의의

이용기관 증대5월 말 카카오뱅크 조회 서비스 오픈 이후, 조회 건수 급 성장

19. 12. 18 이전 24개 이용기관이 현재 67개로 확대됨

수수료 절감

신규 진입 사업자의 경우 1/10, 기존 사업자들의 경우 1/3 수준의 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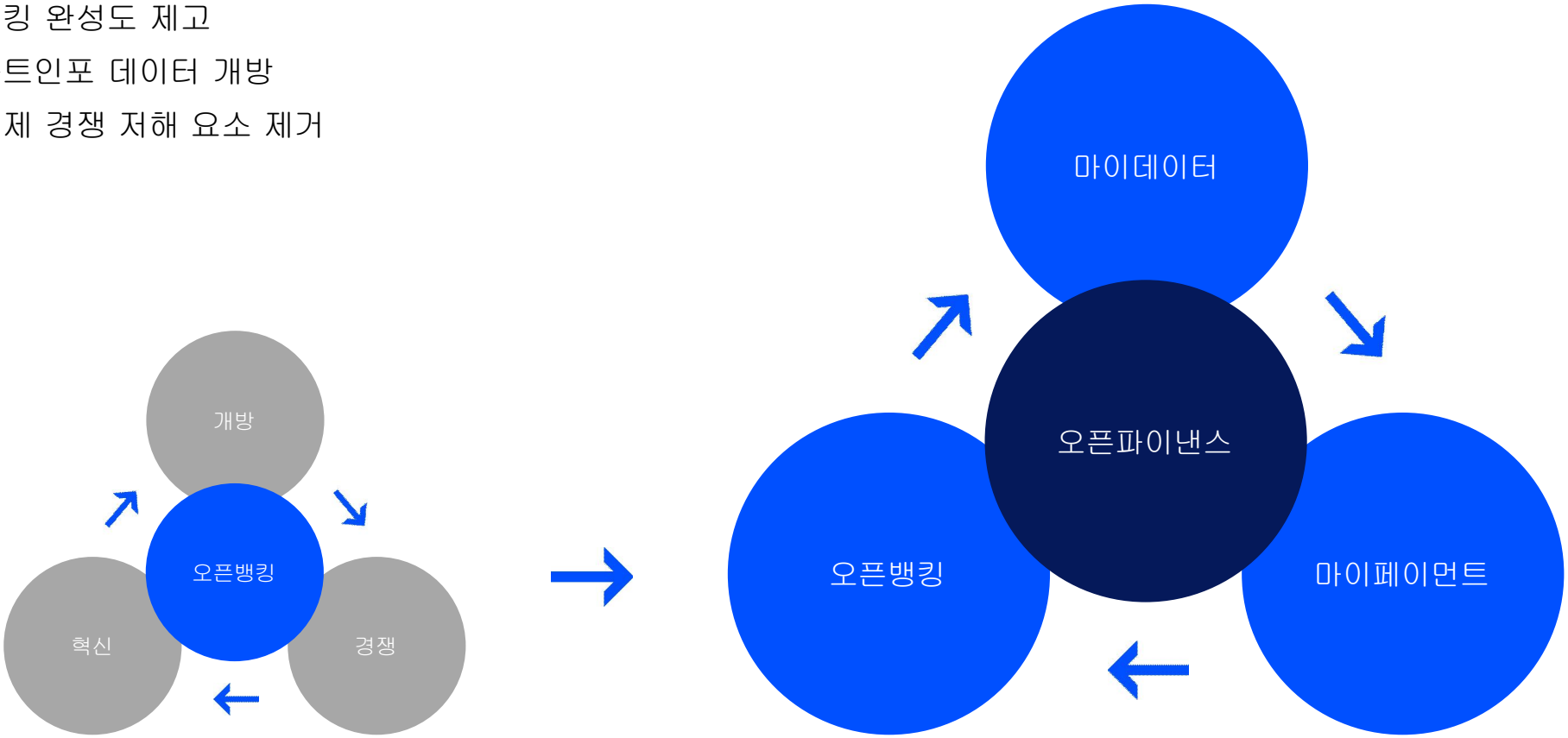
고객 편의성

다양한 앱에서 고객들의 본인의 계좌를 등록해서 송금/조회 가능하게 됨

오픈뱅킹 발전 방향과 제언

오픈뱅킹 발전 방향

오픈뱅킹 완성도 제고
어카운트인포 데이터 개방
간편결제 경쟁 저해 요소 제거



오픈뱅킹 완성도 제고

지역농·축협 등 제2금융권 참가확대

지역농·축협 계좌수는 전체 은행계좌의 1/6 수준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빠른 참가 희망

*지역농축협 고객은 NH스마트뱅킹 앱을 통해서 오픈뱅킹 우회 이용 가능하고, 지역조합의 합의 이유로 소극적

그 외 상호금융, 증권사, 저축은행, 우체국 등도 연내 오픈뱅킹 참여 필요

오픈뱅킹 완성도 제고

조회 API 수수료 합리화

업무 \ 구분		현행 비용	기본비용 (대형)	경감비용 (중소형)
조회	잔액조회	10원	10원	5원
	거래내역조회	50원	30원	20원
	계좌실명조회	100원	50원	30원
	송금인정보조회	300원	50원	30원
이체	출금이체	500원	50원	30원
	입금이체	400원	40	20원

※ 경감비용 적용기준: (이체) 월 거래금액 100억원↓ & (조회) 월 거래건수 10만건↓

19년 12월 오픈뱅킹 런칭 시 이체 수수료는 1/10로 인하

입금이체 수수료는 펌뱅킹 대비 현재도 높은 수준

※ 펌뱅킹 협약조건에 따라 입금이체 수수료 0원~10원에 이용 중

조회 API 수수료가 높아 핀테크 기업 사용률 저조 (주로 은행권에서 이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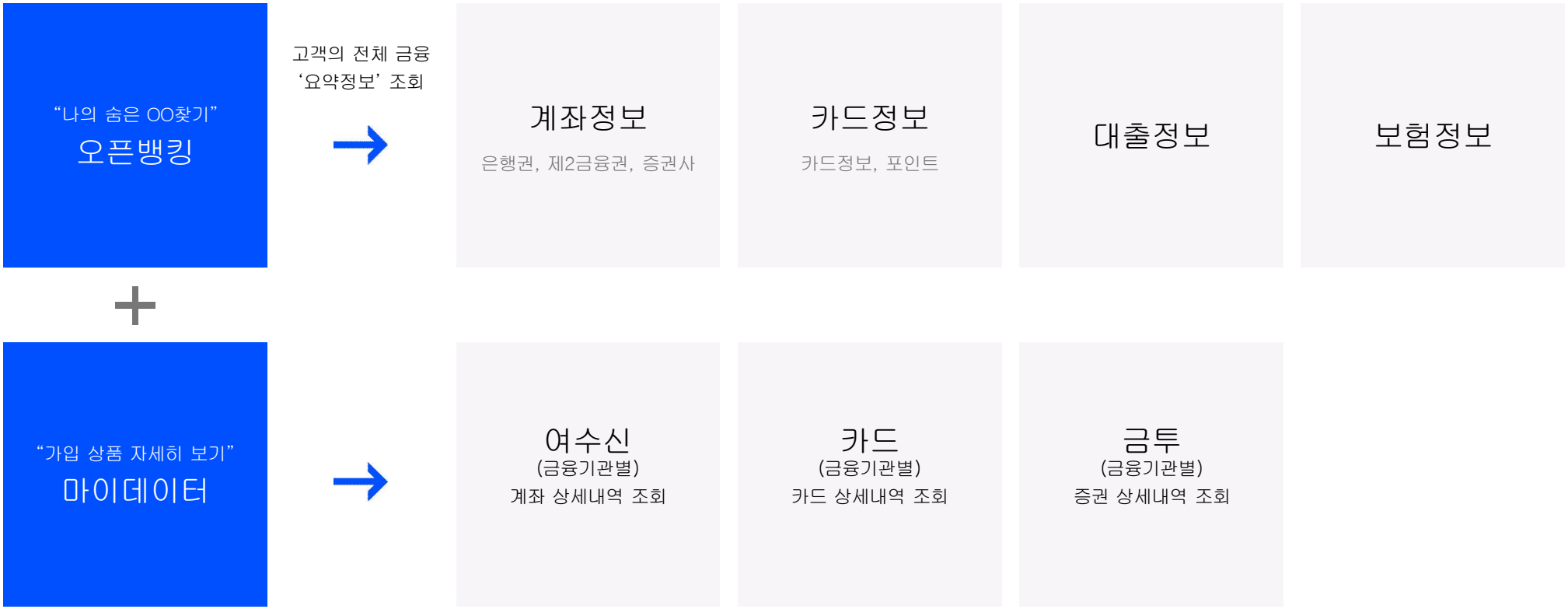
※ 카카오뱅크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에 이용 (주로 PFM 서비스用)

→ 조회 수수료 또한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준 인하 필요

※ 마이페이먼트 도입 시점, 지급지시 API 관련 가격 위와 별개로 별도 논의 필요

오픈뱅킹 활용 데이터 개방

금융권 어카운트 인포 [요약 정보]와 핀테크 정보 등 포괄적인 데이터 개방 필요



간편결제 경쟁 저해 요소 제거

페이인포 (자동이체정보) 핀테크 개방

1. 자동이체정보 간편관리
2. 계좌이동제 활성화
3. 종합지급결제업 시너지

→ 핀테크와 금융기관의 경쟁과 협력 강화

감사합니다